

생명연구원, 2월1일 설립 23주년 잔치

한국생명공학연구원(KRIBB)은 2월1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2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.

기념식에서는 식물유전체연구센터 허철구 박사가 2007년 최고의 성과를 낸 연구자 등에게 시상하는 KRIBB 대상을 받았다.

허철구 박사는 2007년 특정 조직에서 나타나는 유전자 탐지 도구 및 신약후보 탐색 도구 시스템을 개발해 바이오융합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.

또 세계적 제약기업인 Merck로부터 지원을 받아 새롭게 시상하는 Merck& KRIBB Award는 분자암연구센터팀원 등 4명에게 돌아갔다.

생명연구원 이상기 원장은 “23년간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눈부시게 발전해 왔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된다”며 “사업화 활성화 등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과 책임이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자”고 당부했다.

<화학저널 2008/02/01>